

IBKS Spot Comment

제약/바이오

정이수 CFA

02) 6915-5677

[한미약품]

일라이 릴리 기술이전으로 실적과 신약가치 ‘일석이조’

약 6년 만에 글로벌 빅파마와 기술이전 계약 체결

한미약품은 6월 1일 일라이 릴리와 단장증후군 치료제 후보물질 소네페글루타이드(LAPS GLP-2 analog)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발표했다. 이번 계약은 2020년 MSD와의 기술이전 계약 이후 약 6년 만에 성사된 글로벌 빅파마 대상 기술수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계약 규모는 총 12억 6,000만 달러(한화 1조 8,973억 원)이며, 이 중 계약금은 7,500만 달러(한화 약 1,129억 원)이다. 계약금은 올해 2~3분기 중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단기 실적 서프라이즈도 기대된다.

소네페글루타이드는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의 인적 분할(2010년) 이후인 2017년부터 개발이 시작된 파이프라인이다. 다만 한미사이언스와 공동 개발한 장기 지속형 플랫폼 기술인 LAPSCOVERY가 적용된 후보물질인 만큼, 향후 계약금과 마일스톤, 로열티 수익은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 간 일정 비율로 배분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전일 한미약품 주가는 9.78% 상승했으며 시가총액은 6,149억 원 증가했다.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 역시 4.41% 상승 마감하며, 이번 기술이전의 수혜 기대감이 양사 주가에 동반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일라이 릴리, 월 1회 제형 경쟁력과 적응증 확장 가능성에 주목

소네페글루타이드는 현재 단장증후군 적응증으로 글로벌 임상 2상이 진행 중이며, 임상 종료 시점은 2027년 12월로 예정되어 있다. 단장증후군은 선천적 요인 또는 생후 외과적 절제술로 인해 전체 소장 60% 이상 소실되어 발생하는 희귀질환이다. 주요 증상은 흡수 장애에 따른 영양 실조이며, 환자들은 장기간 정맥 영양 또는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기존 치료제인 가텍스(Gattex, 성분명 teduglutide)는 매일 피하주사가 필요한 반면, 소네페글루타이드는 반감기를 연장한 장기 지속형 GLP-2 analog다. 이에 따라 월 1회 투여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어 투약 편의성 측면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2025년 기준 가텍스 글로벌 매출액은 약 9억 3,600만 달러로, 소네페글루타이드는 해당 시장을 주요 타깃으로 할 전망이다.

또한 소네페글루타이드는 GLP-1 작용제인 에페글레나타이드와 병용 투여 시 염증성 장질환 전임상 모델에서 치료 시너지 가능성이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라이 릴리는 단장증후군이라는 희귀질환뿐 아니라 향후 염증성 장질환으로의 적응증 확장 가능성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라이 릴리가 보유한 비만·대사질환 치료제와의 병용 또는 시너지 전략이 구체화될 경우, 소네페글루타이드의 중장기 신약가치는 추가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www.ibk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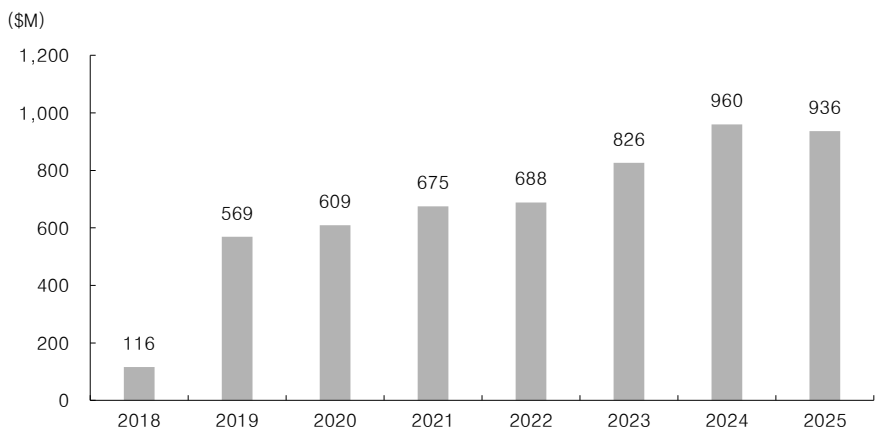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리서치본부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해 최종 결정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표 1. 한미약품 기술이전 공시 내용

계약 대상	소네페글루타이드(LAPS GLP-2 analog)
계약 상대	일라이 릴리
계약금	7,500만 달러 (약 1,129억 원)
마일스톤	11.85억 달러 (약 1조 7,844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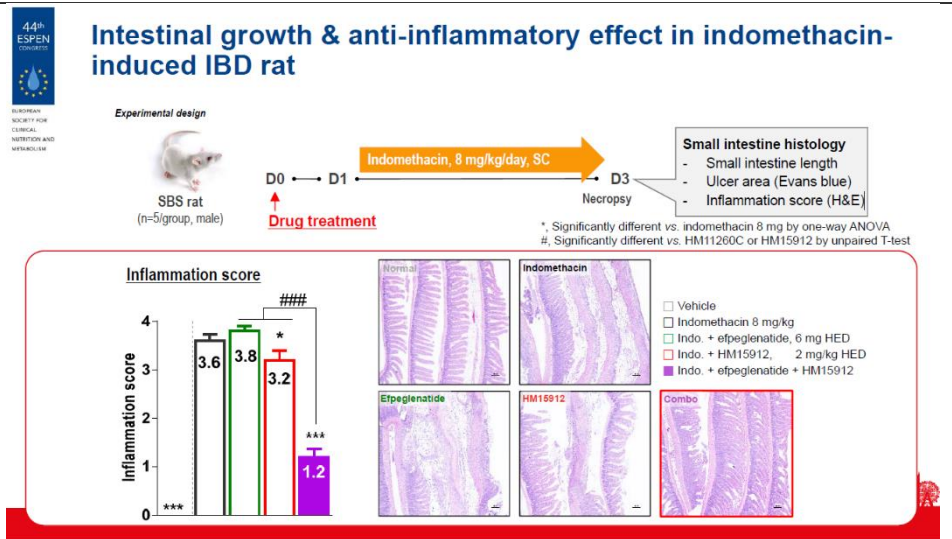
자료: DART, IBK투자증권

그림 1. 단장증후군 치료제 가택스 글로벌 매출 추이



자료: GlobalData, IBK투자증권

그림 2. 소네페글루타이드와 에페글레나타이드 병용 시 염증성 장질환 모델에서 염증 완화 효과 확인



자료: ESPEN(2022), 한미약품, IBK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는 조사분석자료 작성에 참여한 외부인(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등)이 없습니다.

조사분석 담당자 및 배우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